



조간 제 8149 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음력 7월 6일)

호남이 품은 김민석, 민주당 새 대표 당선

더불어민주당 8·17전당대회

전남광주 등 호남권서 승기를 잡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8·17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새 최고위원에는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운·한민수 의원이 뽑혔다.

17일 민주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이번 대회의 새 지도부 선출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2·3면

당 대표 경선에서는 김 전 총리가 54.08%를 얻어 45.92%에 그친 정청래 전 대표를 8.16%p차로 누르고 새 대표에 당선됐다.

김 전 총리는 전국 관리당원 투표에서는 55.94%를 얻었고,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66.69%, 국민여론조사에서 49.30%를 얻었다. 정 후보는 관리당원 투표에서 44.06%를 얻고,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33.31%, 여론조사에서 50.70%를 얻었다.

최종 합산 결과 두 후보 가운데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없어 선호투표에서 3위를 한 송영길 의원의 2순위 표를 합산한 결과 김 후보가 최종 승리를 차지했다

김 전 총리는 경선 초반 정 전 대표와 박병의 선두 다름을 벌였지만, 지난 15일 전남광주·전북 경선에서 정 후보를 25.0%p 차로 따돌렸고, 이어진 수도권 경선에서는 정 후보의 거센 추격을 받아 비록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1위를 지키내면서 최종 당선됐다.

선호투표제 적용 최종 득표율 54.08%...정청래 제쳐
“민주당 바꾸겠다…당정·당청 창조적 수평관계로”
최고위원에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운·한민수

결국 호남을 제외한 타지역 순회경선에서는 박병의 선두다름을 벌였지만 호남에서 큰 표차가 이긴 것이 김 전 총리의 당선에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신임 김 대표는 경선 기간 ‘당정일치’와 2028년 총선 승리를 내걸었다.

김 대표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민주당을 바꾸겠다. 언어, 태도, 정책, 문화가 진화할 것”이라며 “ABC에서 시작하겠다. 나는 이재명 정부의 ABCD 전략을 썼는데 이번엔 민주당 ABC 플랜”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관리당원투표 결과를 대의원투표 결과와 여론조사를 합산하는 과정까지 치열한 접전 끝에 5명의 당선자를 확정했다.

지난 16일 마감된 관리당원 누적투표에서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운·한민수 의원이 당선권인 5위 안에 들었고, 대의원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순위를 확정지었다.

최민희 의원이 18.35%로 1위였고, 이어 박선원(17.57%), 서미화(16.60%), 이성운(16.35%), 한민수(15.86%) 의원 순이다. 전명(진이재명) 계가 2명(박선원·서미

화 득표순), 전청(전정청래) 계가 3명(최민희·이성운·한민수)이다.

이번 최고위원 경선은 관리당원 투표의 경우 지난 15일 호남에서 천명계가 크게 약진하며 기존 누적 순위를 갈아치운 반면, 다음날 수도권에서는 천명계가 대대적으로 반격하되는 등 엇바뀌듯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눈에 띄는 것은 호남 출신인 박선원·서미화 후보이다. 경선 도중 호남에서 많은 표를 받았고, 막판 수도권과 여론조사에서는 다소 밀렸지만, 당선권을 끝까지 지켜내 텃밭 표심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순회경선에서 드러난 관리당원 투표율은 대구가 72.01%로 가장 높고, 이어 경북(71.22%), 부산(62.37%), 경기(54.48%), 서울(54.37%), 인천(53.72%), 울산(51.94%), 세종(51.84%), 경남(50.16%), 전남광주(49.30%), 전북(47.04%), 대전(44.74%), 강원(43.07%), 충북(40.45%), 충남(39.08%), 제주(37.58%) 순이다.

이성운 기자 sol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 대표가 1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당기를 흔들며 뒤편을 보이고 있다.

민형배 시장 “SK, 전남 동부권에 100조원 투자”

AI 데이터센터·생산설비 등 대규모 투자 예고

SK그룹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동부권 100조원 안팎 대규모 투자 구상이 공개됐다.

또 광주 균형항 부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팹(Fab)도 기존 4기에서 최대 9기로 늘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14일 오전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회의와 의정 정책 간담회

에서 “SK가 전남 동부권에 100조원 안팎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시장은 동부권 소외 문제를 언급하며 “동부권이 계속 소외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SK의 투자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어제 저녁에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의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SK

에서 100조원 안팎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꽤 오래전부터 추진해오던 것”이라며 “동부권 소외가 완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SK의 구체적인 투자 분야와 대상 지역, 일정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SK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관련 생산설비 등이 동부권 투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면에 계속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목포대·순천대 “의대·대학병원 양보 못해”

3자 회동 합의점 못찾아…정부 제출 시한 임박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전제로 통합을 추진해 온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가 의대 소재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의대 신설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제시한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 시한은 오는 20일로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두 대학은 추가 회동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17일 목포대와 순천대 등에 따르면 두

대학은 지난 14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주재로 3자 회동을 갖고 의대와 대학병원 소재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말로 예정했던 대학 통합 신청서 제출 기한을 민 시장의 요청에 따라 이달 10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두 대학은 연장된 기한까지도 의대 소재지 등에 합의하지 못해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

지 못했다.

정부는 이달 초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한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국정과제인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에 따라 경북과 통합 전 전남지역을 의대 정원 100명 배정 후보지로 선정하고 각각 추진계획서를 요청한 것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두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의대와 대학병원 소재지 등을 합의한 뒤 공동 추진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특별시는 의대 신설 필요성과 신청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계획 등을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신고전화
육번없이 1332**

자동차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기간
26.3.25. (수) ~ 10.31. (토)

당신은 목격자입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최대 5천만원**
병의원 관계자 5,000만원 / 정비센터가 관계자 3,000만원